

나주시, 농촌일손 알선 창구 운영

농번기 농촌인력 확보 총력

공공기관·유관기관 등 참여 독려

농협 등도 인력증개센터 개소

나주시가 부지깡이도 빌리고 싶을 정도로 일손이 부족한 영농철 농촌 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적극 인력 지원에 나선다.

나주시는 농번기 농촌인력 확보를 위해 오는 6월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농촌 일손 알선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알선 창구에선 농가 수요를 파악한 후 영농 현장에 인력을 파견할 계획이다.

영농인력 확보를 위해 '사회공헌' 책자가 있는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관공서, 유관기관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인력 지원은 농촌지역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고령농, 독거노인, 장애농업인 등 취약 농가에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국내 최대의 배 산지인 나주는 올해 저온 피해가 적어 배 인공수분, 열매숙기, 봉지 씌우기 작업 등에 예년보다 많은 일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숙련된 농작업 인력 알선에 노력하고 있다.

농촌 일손 알선은 나주시 알선 창구 외에도 농협



농촌 일손 알선 창구에서 농민들이 배농장에서 열매숙기 작업을 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중앙회 나주시지부, 배원예농업협동조합, (사)나주시농어업협회의소에서도 인력증개센터 운영을 통해 인력난 해소에 나서고 있다.

농촌인력증개센터에선 인력풀을 구성해 일손이 필요한 농가와 일자리가 필요한 구직자를 중개수수료 없이 무료로 연결하고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도시민 유류인력을 투입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취약 농가가 있다"면서 "상생과 연대의 지역 공동체 실현을 통해 농촌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세계적 재즈 피아니스트 롭 반 바벨 화순 공연

30일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국제재즈데이 in 화순' 무대

세계적 재즈 피아니스트 롭 반 바벨(Rob V Bavel·사진)이 오는 30일 화순에서 공연한다. 화순군에 따르면 롭 반 바벨이 30일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적벽실에서 열리는 '국제재즈데이 in 화순' 무대에 오른다.

'국제재즈데이 in 화순'은 유네스코 지정 '2024년 국제 재즈데이'를 맞아 사단법인 아트포(대표 정희수)에서 세계적인 재즈 피아니스트 롭 반 바벨을 초대해 추진하는 행사로, 재즈의 정수를 직접 관람할 수 있는 자리다.

롭 반 바벨은 네덜란드 출신의 세계적인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훌륭한 교육자로도 정평이 나 있다.

몽크 컴피티션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세계



각국에서 초청 연주회를 했으며, 우디 쇼, 랜디 브레커 등 유명 아티스트와 협업했다. 특히 재즈 트럼페터 헛 베이커의 마지막 피아노 연주자로 잘 알려져 있다.

한편 (사)아트포는 그동안 교육과 연주 봉사를 실천하며 공익성을 인정받고, 화순군에서 시민 문화 활동의 축을 담당해 왔다. 지난 7년간의 노력으로 아트포 앙상블 4명 전원이 버클리 음대에 합격한 단체로도 유명하다.

화순군 관계자는 "세계적 아티스트가 화순을 방문한 흔치 않은 기회인 만큼 많은 군민이 함께 참석해 세계 재즈의 정수를 즐기는 기회를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



함평군 '우량 한우 혈통 잇기' 축산농가 간담회

함평군이 우량 한우 혈통을 잇기 위해 축산 농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함평군은 최근 우량 암소 사육 농가들과 간담회(사진)를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함평군의 유전체 분석 사업과 우량 암소 장려금 지급 등 관련 한우 산업 육성·지원책과 한우 개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했다.

이날 우량 암소 사육 농가와 함평축협, 전국한우협회 함평군지부 등이 참석해 한우 혈통 개량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함평군은 지난해 12월 말보다 우량 암소가 16마리 늘어난 109마리를 현재 사육하고 있다. 우량 암소 사육 농가도 4개 농가가 더 증가한 32개 농가에 이른다.

함평군은 올해 '한우 암소 유전체 분석 지원사업'을 처음 추진하며 16개 농가 한우 1333마리를 대상으로 유전체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우량 혈통 개량 가속화를 위해 축산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우량 암소 구입비 지원 사업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

장성군 '청년 마인드 케어'

우울증 등 심진 치료 지원

장성군이 각종 스트레스와 불안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마음 치유'를 적극 지원한다.

장성군은 청년 정신 건강 관리를 위한 '청년 마인드 케어'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청년 마인드 케어는 고용 불안, 직장 내 스트레스, 우울감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39세 청년들을 위한 마음 돌봄 프로그램이다. 정신 건강 선별·우울증·스트레스 검사, 마음과 마주하는 정신 건강 프로그램, 아로마 편백베개 만들기, 생명 지킴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검사 결과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청년은 정신건강전문사의 무료 상담과 유관기관 연계, 치료비 등을 지원한다.

프로그램 참가 신청은 오는 30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보건소(061-390-8319)로 문의하면 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이 일상에 지친 마음을 달래고 삶의 균형을 회복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정신 건강과 우울증 극복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강진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들이 간척지 담수호의 염농도를 측정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강진군 간척지 염농도 측정 농가에 문자 알림

간척지 벼농사 염해 피해 예방

강진군은 영농철을 앞두고 지역 간척지 염농도를 측정해 읍·면 마을 이장단에게 문자로 알려주겠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문자 알림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영농기 이전에 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강진군 농업기술센터는 매주 지역 간척지 담수호 염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읍면 마을 이장단에게 문자로 알릴 예정이다.

간척지에서 벼농사하면 염농도 수치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가뭄 때 높은 담수호 염농도 수치에

따라 작물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간척지에 사용되는 농업용수인 담수호의 염농도를 사전에 점검해 미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강진군은 대표적인 간척지인 도암면 만덕간척지 250ha, 신전면 사내간척지 500ha에 사용될 담수호(만덕호·사내호)를 대상으로 간척지 염농도를 매주 측정하고 있다. 벼의 생육 한계농도는 0.3%, 생장 장애 한계농도는 0.05~0.13%로 알려져 있다. 이달 현재까지는 올해 들어 잦은 강우로 강진군 간척지 담수호 염농도는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장흥군 6월7일까지 '장흥살이 수기' 공모

장흥군이 '장흥살이 수기'를 오는 6월7일까지 받는다.

장흥살이 행복이야기 '살아본게 장흥이 최고여라' 수기 공모전은 올해 다섯 번째 열린다. 공모일(4월 24일) 기준 장흥군민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장흥에 살면서 느낀 진솔한 이야기, 결혼, 자녀 양육 등 가족의 소중한 가치, 귀농·귀촌, 질병 치료, 자연환경 등 장흥에 안착하기까지의 사례들이 소재가 될 수 있다.

올해는 산문 외에도 시 부문이 신설됐다.

주제의 적합성, 독창성, 완성도, 공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작을 선정한다.

상금은 산문 부문과 시 부문 각 대상을 비롯해 14명에게 총 500만원을 준다. 올해도 수상작들은 책으로 엮어서 발간될 예정이다.

장흥군은 1~4회 공모전을 치르며 68명, 총 1690만원의 상금을 줬다. 지난해에는 안양면 이현진씨의 '장흥의 품에 안겨, 오롯이 착륙' 수기가 대상을 차지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수 목 장

삶의 마지막,
한 그루 나무가 될
당신을 기억합니다.